

WITH YOU **WECA**

Education is the only solution

세계교육문화원 위카

COVER STORY

우간다 카산다 나마발레 위스쿨 아이들의 체육시간 모습입니다.

2023
Vol.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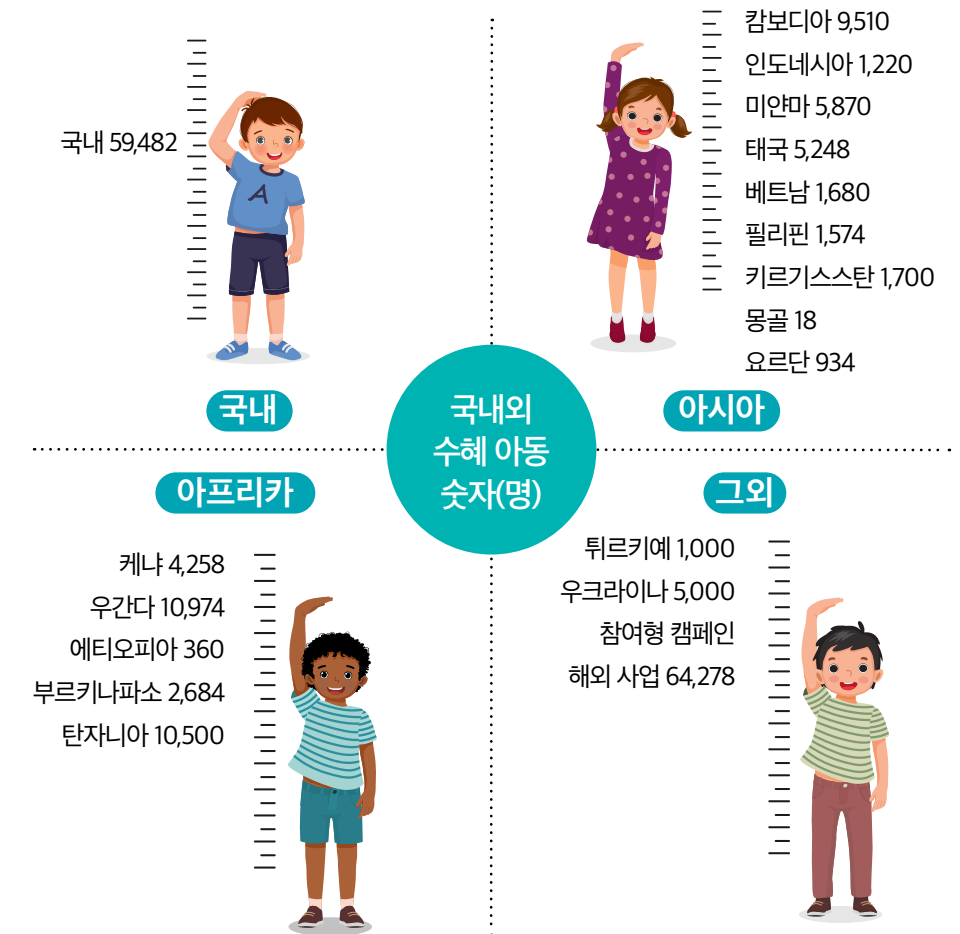
Contents

위카 수혜자 현황	03
세계속의 WECA	04
국내 교육·문화 지원	
삼일절 맞이 태극기 만들기 역사 교육	06
그룹홈 문화체험활동 지원	07
청각장애인 플로리스트 직업 교육	08
국내 나눔사업	
소외계층 겨울나기 따뜻한 연탄 나눔	10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을 응원합니다	11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캠페인	12
사랑 담은 김장 김치 나눔	14
국내 환경정화사업	
EM흙공 이야기	16
해외 교육·문화 지원	
우간다 나마발레 초등학교 보수공사	18
키르기스스탄 태권도 교실,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다!	19
우리 키르기스스탄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20
호치민에 찾아온 희망의 교실	22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23
캄보디아 WEFC 에이스를 만나다	24
기타 사업	
캄보디아 결연 아동 가정방문	26
튀르키예 대지진 긴급구호 일기	28
임직원이 함께하는 기업 사회공헌	30
사회공헌 안내	31
따뜻한 관심으로 싹트는 사랑의 씨앗, 해피빈	32
포토갤러리	
위카 사진전	34
기부와 후원	
정기후원이 만드는 기적	36

후원자님의 따뜻한 나눔으로 18 만 명의 아이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이 해외 13개국과 국내 취약계층에게 꾸준히 희망을 전할 수 있었던 건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많은 후원자분이 따뜻한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구석구석에 그 온기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 언제나 응원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아이들이 무사히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바쁘게 움직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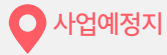


WECA 2023 Vol.10

발행처 세계교육문화원
발행인 방정환
발행일 2023년 5월 17일
기획구성 세계교육문화원
대표전화 1522-3959
홈페이지 www.weca.or.kr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145, 1103호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Instagram: weca_korea
Facebook: weca3959
Blog: weca3959
Twitter: wecalove
YouTube: @세계교육문화원weca
Website: 세계교육문화원weca



사업예정지

나미비아, 네팔,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 한국**
교육사업, 문화사업, 그룹홈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학술세미나 개최, 국내아동결연, 인도적 지원 사업
- 요르단**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WECA 유소년 축구단지원(WEFC) 합주단, 합창단, 태권도
- 키르기스스탄**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합주단 WECA 랭귀지스쿨(문해교실) 지원, 태권도 합창단, 해외아동결연
- 케냐**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WECA 유치원, WECA 공부방 1,2호 지원, WECA 유소년 축구단지원(WEFC)
- 탄자니아**
식수사업

-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구호
- 우간다**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나무심기사업, WECA 유치원(HIL TOP유치원)지원, 긴급구호 키트지원, 위스쿨(초등학교, 중학교)운영, 환경개선사업(도로, 전기, 주방, 화장실) WECA 유소년 축구단지원(WEFC), 염소사업, 태권도
- 에티오피아**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위드홀(수재원) 운영
- 부르키나파소**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WECA 유소년 축구단지원(WEFC), 태권도
- 아이티**
자진 긴급구호

- 헝가리**
전쟁 난민 긴급구호
- 캄보디아**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WECA 랭귀지스쿨(문해교실) 지원, WECA 유소년 축구단지원(WEFC), WECA 공부방 1,2호 지원, WECA 작은도서관 지원
- 베트남**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WECA 랭귀지스쿨(문해교실) 지원, KB증권 무지개교실
- 몽골**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 라오스**
교육사업

- 인도네시아**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예명 직업전문학교 및 장학생지원, 바탐 작은도서관 1호 운영지원,
- 미얀마**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KB국민카드 하모니교실, 위드홀 운영
- 필리핀**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유치원 운영지원, 해외아동결연, 태권도
- 태국**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합주단
- 튀르키예**
긴급구호

삼일절 맞이 태극기 만들기 역사 교육 우리 아이들, 태극기 그리는 법은 알고 있을까요?



대한독립만세! 삼일절을 맞아 비교적 교육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태극기 만들기 수업과 역사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목숨 바쳐 대한독립을 외치던 독립운동가들의 함성, 그날의 뜨거웠던 애국심 덕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태극기의 외형과 각각의 요소가 가진 의미에 대해 배웠고, 조그만 손으로 열심히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또한, 삼일절의 유래와 정확한 의미에 관한 수업을 듣고 역사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역사 교육을 200% 충족하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룹홈 문화체험활동 지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구김 없이 잘 자라길 바라지만, 열악한 재정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기 힘들다고 합니다. 철이 들어 쉽사리 조르지 못하는 아이들, 이렇다 포기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쩌죠?

그래서 세계교육문화원은 그룹홈 아이들을 제주도로 데려갔습니다! 냉탕에 들어가기 전 가슴팍에 찬물을 끼얹듯, 자립에도 여행연습이 필요해요. 이미 한 번 원치 않은 이별을 겪은 아이들에게 이별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곧 나이가 차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아이, 또 그 아이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동생들에게 이번 제주도 체험학습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룹홈은 학대, 방임, 이혼 등 저마다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아이들은 이른 나이에 각자의 아픔을 겪고 일찍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청각장애인 플로리스트 직업 교육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이들의 이야기


 캠페인
보러가기


전국의 청각장애인 수는 약 37만 명이지만, 많은 숫자에 비해 살면서 만나는 일은 드뭅니다. 청각을 제외한 신체상의 문제는 없으나 사회의 인식과 편견 탓에 한정적인 직종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청각장애인은 단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더 잘 보는 사람'입니다. 귀 대신 눈으로 세상을 보아온 이들은 비장애인보다 시야가 1.5배나 넓고 시각 정보 습득이 빨라 다양한 직종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에 비해 높디높은 취업 문턱에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매년 사회적 기업 플립과 협력하여 플로리스트 전문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턱이 높은 청각장애인들은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간절합니다.

지난 4월 28일, 세 번째 플로리스트 교육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4명의 수료생은 8주간의 교육을 훌륭히 마치고, 꿈에 한 발짝 더 내딛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진지한 마음가짐을 보여주었던 수료생들의 자립을 응원합니다.

화초를 키우려면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흙과 적당한 양의 물, 그리고 알맞은 온도의 햇살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길러낸 화초에서 핀 꽃은 기쁨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화초를 키우듯 꿈을 꽃피우는 데에도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피워냈을 때, 그 결과물이 무엇보다 아름다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들이 피워낼 아름다운 이야기에 여러분들도 함께해주시겠어요?



아름다운 꽃말



아마릴리스
눈부신 아름다움



재스민
행운을 빕니다.



팬지
나를 생각해주세요.



개나리
나의 사랑은 당신보다 더 깊습니다.



소외계층 겨울나기

따뜻한 연탄 나눔

지난 1월 28일, 세계교육문화원은 소외계층 겨울나기 따뜻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네이버 해피빈 모금과 (주)동서식품의 따뜻한 나눔으로 마련한 연탄 8,500장을 노원구 백사마을 취약계층 50여 가구에 나눠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 봉사활동에는 무려 80여 명의 자원 봉사자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신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주)동서식품 덕분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던 백사마을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을 응원합니다

지난 4월 11일 오전 10시경, 강릉 난곡동 야산에 화재가 발생했고, 거센 바람에 불길은 이북과 경포대 인근까지 번졌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까맣게 탄 건물의 잔해가 불규칙적으로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한 곳은 야산 인근에 지어진 오래된 집들이었습니다. 녹아버린 지붕과 그을린 장판에선 아직도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세계교육문화원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해 상황과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물자 품목을 조사하였고,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 200가정이 2주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을 대피소에 전달했습니다. 곳곳에서 모인 후원자님의 따뜻한 손길에 힘입어 산불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재건되길 바랍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캠페인



낮설고 가슴 아픈 단어 생리 빈곤(period poverty)은 먼 곳이 아닌 우리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약 15만 명의 여성 청소년이 생리 빈곤을 경험합니다. 올해 들어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생리대도 비싸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여성 청소년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여성 청소년 점자 생리대 전달

월경 기간의 여성들은 생리대를 살 때 제품의 브랜드와 안전성, 고객 후기 등을 보고 원하는 제품을 고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선택의 여지도, 안전을 확인할 기회도 없습니다. 사이즈도 맘대로 고르지도 가방 속에서 골라 집기도 힘든 시각장애 여성청소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사이즈의 생리대를 착용하거나, 매번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월경 기간을 보냅니다.

힘든 월경 기간을 보내는 시각장애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세계교육문화원은 점자 생리대를 지원하는 모금함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무려 1,000만 원이 모였고, 후원금 전액으로 점자 생리대를 마련하여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전달했습니다. 생리대는 무사히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 여성청소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여성용품 전달

매달 찾아오는 월경 기간,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은 때때로 제때 생리대를 교체하지 못해 여러 질환에 시달리곤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월세와 공공금을 비롯한 생활비를 빼면 남은 돈은 얼마 없기에 훌쩍 오른 생리대 가격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비싼 생리대 탓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서 세계교육문화원은 모금함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공감해주셔서 무려 1,500만 원이 모였고, 후원금 전액으로 생리대를 마련해 영월 군청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생리대는 영월 군청을 통해 무사히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30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무사히 월경 기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후원자님의 나눔이 귀하게 쓰이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사랑 담은 김장 김치 나눔

매일같이 무섭게 오르는 물가에 놀라게 되는 요즘, 소외된 이웃들의 밥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홀벌이로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가정이나 비교적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많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매끼를 든든하게 식사하기 어렵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 관리비 등을 내고 나면 식비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아이들의 밥상은 부실할 때가 많고, 부모님은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조용히 눈물짓곤 합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손수 담근 김치로 다문화·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응원하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봉사자들과 임직원들이 한데 모여 직접 김장한 김치 1,500kg를 어려운 형편의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가정에 전달했습니다.

갓 지은 밥에 김치를 올려 먹기도 하고, 전으로도 부쳐 먹고, 잘게 잘라 넣어 볶음밥으로, 추운 겨울에는 얼큰한 찌개로.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끼니를 책임진 영양 만점의 만능 음식입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마련한 김치를 받아든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66 미식가직원들의 김장 김치 맛 평가!

66



대외협력팀 홍과장님

아삭아삭해서 너무 맛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내가 담근 김치가 아주 조금 더 맛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행정지원팀 박주임님

적당히 시큼해서 김치볶음밥으로 요리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매번 담그는 김치지만, 이번엔 소외계층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며 김장 했더니 정말 뿌듯했어요.



미디어기획팀 공피디님

김치 마니아로서 말씀드리자면, 근래 먹었던 김장 김치 중 당연 최고입니다. 스코빌 지수 1,200SHU의 고춧가루로 버무려 딱 기본 좋게 매콤하므로 비교적 순한 맛의 라면과 페어링하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하천 환경 지킴이

EM흙공 이야기

내 이름은 EM흙공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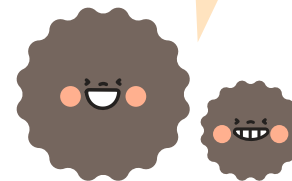
나는 비점오염*으로 더러워진 하천을 맑게 만들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배양하여 만들었대요. EM용액과 황토를 열심히 조물조물해서 동그랗게 빚으면 완성이에요. EM(Effective Microorganisms)은 '유용한 미생물'이란 뜻이래요. 나는 내 이름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흙, 기름, 농약, 중금속, 등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와 발생하는 광범위한 배출 경로 때문에 배출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수질 오염

환경 지킴이라고 불러주세요

자원봉사자들의 손에 힘껏 날아가 풍당! 시원한 강물 속을 뚝뚝 떠다니네요. 한바탕 물놀이를 하다 보면 서서히 우리 몸속 미생물들이 분해되어 하천 속 오염물질들을 정화 시켜요. 하천 밑 오염된 흙도, 고약한 악취도 우리한테는 식은 죽 먹기라고요.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 안양천에 흙공을 던졌습니다.

하천은 자라날 아이들과 동식물들의 쉼터입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지난겨울 EM흙공 총 3,000개를 준비하여, 5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힘을 모아 '안양천살리기 EM흙공 던지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EM흙공은 지속적인 하천 수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방법으로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하천 정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아이들에게 깨끗한 하천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보태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하천이 하루빨리 정화되길 기대해봅니다.

WECA 나마발레 초등학교

비바람과 야생동물을 막아주는 튼튼한 교실을 선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진 우간다, 그곳에서도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알려진 카산다 나마발레 지역엔 교육 시스템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곳에선 어린 나이에 일찍부터 노동으로 내몰리고, 여자아이들의 조혼과 매매혼이 성행합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교육의 끈을 놓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마발레 아이들이 다니는 작은 초등학교에는 창문과 문이 없어 비가 내리면 물이 새고 박쥐가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을 위협하곤 합니다.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탓에 아이들은 배움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교육환경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는 우간다 아이들을 위해 교실 보수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오랜 계획과 공사 끝에 보수공사를 무사히 마쳤고, 박쥐 및 야생동물과 빗물을 막아주는 튼튼한 문과 창문과 편한 의자와 책상, 그리고 넉넉한 교실이 생긴 덕에 아이들은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평하게 배움의 기회를 얻는다면 우간다는 빈민국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간다 나마발레 아이들은 소중한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WECA 태권도 교실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다!



지난 3월 9, 10일 키르기스스탄 청각장애 태권도 교실의 아이들과 사범님이 '청각장애인 아시아 태평양스포츠 국제대회'에 참가하였는데요. 자랑스럽게도 아주 좋은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아이들은 목에 건 메달을 어루만지며, 그간의 노력이 보답 받는 것 같아 기쁘고, 태권도를 배울 기회를 준 세계교육문화원과 후원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기특한 키르기스스탄 태권도 교실 아이들이 훌륭한 태권도 선수로 자라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상 기록

금메달
울조바이크즈 쿤술루 학생

53키로급 은메달
아미로바 사히다 학생

46키로급 은메달
투르두쿨로바 아슬한 학생

성인부 은메달
아자말 사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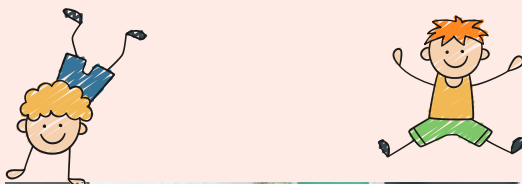
우리 키르기스스탄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의 WECA 브니엘 어린이집에선 현재 유아부 10명과 학생부 6명의 아이가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언어 공부입니다. 특히 한글에 큰 관심을 보여 이제는 제 이름도 척척 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흘러넘치는 WECA 브니엘 어린이집

브니엘 어린이집 유아부는 동네의 마스코트입니다. 구김살 없이 항상 웃으며 활발히 움직이는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은 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시설이 부족한 키르기스스탄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며 오늘도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브니엘 어린이집 아이들이 함께 모여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파타마입니다.

2012년 5월 7일에 태어났어요. 취미는 노래와 춤, 그리고 요리입니다. 나중에 커서 가수나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아! 우주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가수가 될 거거든요. 나중에 꼭 제 콘서트에 와주세요. 알겠죠? 직접 사인해드릴게요!



저는 날라라고 해요.

2017년 6월 14일에 태어났고요. 이 인형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물 1호예요. 저랑 조금 닮은 것 같아서요. 저는 노래랑 춤을 좋아하고요. 꿈은 선생님이예요. 멋진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업이 끝난 후엔 춤을 추며 함께 놀고 싶어요. 저랑 우리 엄마처럼요. 저는 브니엘 어린이집이 참 좋아요. 귀여운 아이들이 많잖아요. 저보단 아니지만요.



나는 리아나랍니다.

2020년 2월 8일에 태어났대요. 좋아하는 건 축구랑 노래랑 동물 기르기예요. 꿈은 경찰이랑 축구선수고요. 특히 경찰은 정말 멋있어요. 용감하게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잖아요. 나는 간식 시간이 제일 좋대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최고로 맛있어요. 간식 많이 많이 먹어서 얼른 키가 컸으면 좋겠대요. 냉장고에서 혼자서도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을 수 있게요. 근데 오늘 간식은 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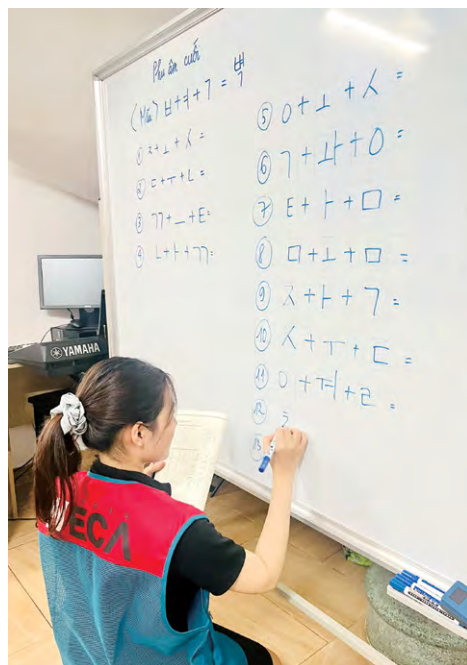
WECA 랭귀지스쿨

호치민에 찾아온 희망의 교실

베트남 호치민시 4군은 빈곤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마약이 흔하고 노숙자가 많은 우범지역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고, 아주 가끔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매번 놓치고 맙니다.

요즘 베트남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그토록 원하던 한국유학과 다양한 취업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유행함에 따라 베트남 내 한국어 어학당의 수강료도 함께 치솟았습니다. 그 탓에 4군에 거주하는 빈곤층에게 한국어 교육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지난 4월 14일, 세계교육문화원은 베트남 호치민시 4군 지역에 새롭게 랭귀지스쿨을 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간절히 바랐기에 예정 수업시간을 넘기는 등 수업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WECA 랭귀지스쿨에서 학생들이 소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후원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WECA 미얀마 위드홈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다양한 이유로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된 미얀마 아이들의 생계와 교육 지원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인 위드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주 남자 위드홈’과 ‘양곤 여자 위드홈’ 두 곳에서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며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이곳 미얀마 위드홈에선 마당과 집을 청소하고, 식물에 물을 주는 일까지 모든 일을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처음엔 어색해했던 아이들도 어느새 주인의식을 갖고 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게 된 이후로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좋아하는 친구들과 맘껏 꿈을 펼칠 수 있어서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가족이 된 우리 미얀마 그룹홈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 열띤 응원 부탁드립니다.

불타는 열정의 캄보디아 WEFC 각 학교를 대표하는 에이스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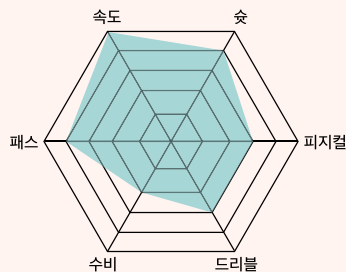
세계교육문화원은 캄보디아, 우간다, 부르키나파소 등 개발도상국에 18개의 WEFC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과 풀뿐인 황무지에서 놀던 아이들은 WEFC를 통해 함께 달리며 화합을 배우고 희망을 품으며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WEFC팀이 많고 정기적으로 친선 대회를 여는 등 무척 활발하게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저번 소식지에는 캄보디아 WECA컵의 결승대회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엔 지난 대회를 빛냈던 에이스 선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언릉쩐의 총알 미스터 반니! 반니 피어레악

2010/05
WEFC
언릉쩐 초등학교 소속



축구를 시작한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존경하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 세계 정상급 돌파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 있는 개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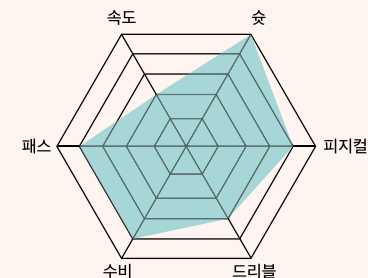
역시나 돌파력입니다. WEFC 최고의 돌파력을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태어나서 처음으로 꿈이 생겼습니다. 축구가 뭔지도 모르던 저에게 벅찬 감동의 순간을 선물 해주신 WECA와 후원자님께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리더! 세트보의 메시 몸 브로밍

2010/04
WEFC
세트보 초등학교 소속



축구를 시작한 이유는?

지금은 잊었습니다.

존경하는 선수는?

메시. 최고의 카리스마. 최고의 캡틴.
정말 존경합니다!



자신 있는 개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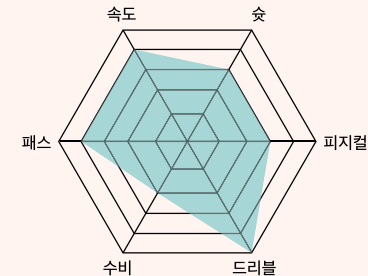
정확한 패스와 구석에 꽂히는 명품 슈트입니다. 더욱 단련해서 최고의 공격수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다음 대회에선 메시처럼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WEFC 화이팅!

무척함대 쁘렉따쁘링의 여제 니몰 김혜잉

2012/02
WEFC 뿌렉따쁘링
초등학교 소속



축구를 시작한 이유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축구경기를 본 이후 관심이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선수는?

조규성 선수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자신 있는 개인기

현란한 드리블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최고의 미드필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경기를 보러 오신다면 제 이름을 크게 불러주세요. 최고의 세레머니로 보답할게요!



캄보디아 결연 아동 가정방문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WECA 캄보디아 어학당의 방과후 교실이 끝난 뒤, 선생님은 결연 아동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끄러운지 몸을 배배 꼬며 가족들을 소개했고, 어학당에서와는 사뭇 다른 모습에 선생님은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만나고 온 우리 아이들의 일상 조금만 공유해 볼까요? 아이들이 너무 부끄러워하니깐 조금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료로 사랑을 전하는
의사가 되고픈 **춘 아니** (만 16세)

춘 아니네 여섯 가족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쪽은 우리 엄마랑 동생 춘 데이빗이고요. 언니랑 사촌오빠는 아직 학교가 안 끝났나 봐요. **우리 가족은 사이가 아주 좋아요. 운전기사 일을 하시는 아빠는 표현은 안 하지만 언제나 우리 삼 남매를 아껴주셔요.**

춘 아니의 꿈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릴 때 심한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열이 펄펄 끓었지만, 병원에 갈 돈이 부족해서 부모님이 전전긍긍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눠주신 감기약을 먹고 나서 열이 떨어지고 정신을 차린 뒤 든 생각인데요. **만약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있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치료를 통해 사랑을 전하는 의사라니요.**

후원자님께

후원자님! 언제나 아니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번에 전달해주신 선물 정말 감사해요. 예쁜 신발과 가방, 그리고 옷과 학용품을 잔뜩 선물해주셨죠. 평소에 정말 갖고 싶었던 것들이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후원자님이 제게 나눠주신 사랑을 절대 잊지 않고, 멋진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게요. 후원자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유를 향해 힘껏 날개를 펼치는

파일럿을 꿈꾸는 **르은 짬턴** (만 15세)



복적복적 열네 가족

선생님 반가워요! 여긴 제 사촌 동생이고요. 저기도 제 사촌... 한 명씩 설명하면 끝도 없겠네요. 우리 식구는 총 열네 명이니깐요. 엄마와 이모, 외삼촌들은 일용직으로 일하시는데 바빠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요. 하지만 사촌들이 많아서 언제나 집이 복적인답니다. **가족이 많아서 참 즐거워요. 외로울 일이 절대 없으니까요!**

르은 짬턴의 꿈

작년까지는 보통 회사원이 되고 싶었어요. 사실 직업이라는 걸 가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후원자님이 생기기 전까진 저도 학교에 나가지 않고 다른 사촌들과 버려진 재활용품을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까요.** 이제는 어학당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찾은 제 꿈은 바로 파일럿이에요.** 새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 어디든 가보고 싶어요.

후원자님께

후원자님! 제게 꿈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쓰레기를 줍던 시간에 어학당에 나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축구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실망하지 않도록 멋진 어른으로 자라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연으로 아이의 꿈을, 나아가 생명을 지켜주세요.
세계교육문화원은 해외 아동 1:1 결연과 국내 아동 결연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계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연 후원 문의 : 1522-3959



튀르키예 긴급구호단 현장 일기



WECA사무국
방영민 국장

지난 2월 6일 새벽 4시경,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대에 7.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모두 잠이 든 시각. 엄청난 광음에 잠에서 깬 사람들은 허겁지겁 대피했지만, 고층 건물도 맥없이 무너져버린 탓에 엄청난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세계교육문화원은 신속히 해외 지부와 연결하여 구호방법을 조사했고, 발 빠르게 움직인 덕에 튀르키예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3달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지진 피해지역 재건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튀르키예
구호 소식



WECA대외협력팀
전은호 간사

<튀르키예 긴급구호팀 전은호 간사의 구호 일지>

사람들은 지진피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던 일자리도 잃고, 쓰레기를 주우며 연명하고 있었다. 튀르키예의 현재 상황을 대표하는 모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실내화로였다. 장작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위를 피하고자 과자 비닐봉지, 아기 기저귀, 길거리 쓰레기 등 불이 붙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집어 넣는 바람에 검은 연기가 무섭게 뿜어져 나오던 화로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난다.

10박 11일간의 구호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건, 구호 물품을 구하는 일이었다.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두 시간 넘게 차를 몰고 피해가 적어 아직 물건을 팔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때때로 그곳에서도 물량이 부족해서 이곳저곳 한참을 돌아다녀야 겨우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만났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겉보기엔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밝은 미소로 모여 놓고 있던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지진을 겪었던 날의 이야기를 꺼내려 운을 떼는 것만으로도 삼시간에 표정이 굳어지는 아이들을 볼 때면, 간접적으로나마 그 날의 악몽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뿌듯했던 순간도 많이 있었다. 한번은 피해지역의 이동식 도서관을 방문하여 잠깐이지만 아이들과 공을 차며 놀아 주고 돌아갔던 다음 날, 다시 그곳을 방문한 나를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와 주던 아이들이 있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구호품 전달을 비롯한 여타 구호활동 중에서도 상처받았던 아이들에게 잠깐이라도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 주었던 그 일이 가장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아직도 튀르키예엔 생필품을 비롯한 구호품과 재건 비용이 간절합니다. 고통받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자님의 따뜻한 나눔 꼭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2-762011(예금주 : 세계교육문화원)



기업과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임직원이 함께하는 기업 사회공헌



동서식품의 백사마을 사랑 연탄 나눔 지원

부쩍 오른 난방비 탓에 유난히 추운 올해 겨울나기를 걱정하던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 후원자님의 따뜻한 나눔과 동서식품의 기업기부참여로 총 8,500장을 마련해 백사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무려 80여 명의 자원봉사자분이 함께해주었고, 창고를 가득 채운 연탄 덕에 서리가 내려앉았던 백사마을엔 모락모락 따뜻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오산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사랑의 나눔 저금통 모금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토기 모양 저금통을 오산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소속의 어린이집에 전달했고, 78개소의 어린이집이 모금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총 4,445,980원의 모금액이 모였으며, 전액 키르기스스탄의 WECA브니엘 어린이집에 전달했습니다. 모금액을 통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맛있는 간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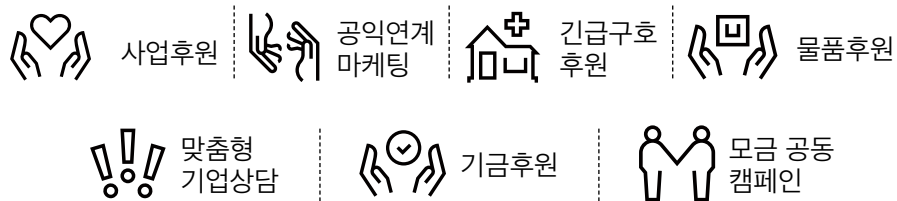


(주)이삭의 소연희 국내 환아 의료지원 후원금 전달

꽃다운 나이에 뇌전증으로 고통받는 아동을 위해 ㈜이삭에서 후원금 6,000,000원을 전달해주셔서 총 11,600,500원의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막대한 약값에 생계가 힘들었던 연희네 가족에게 희망이 생겼고, 고된 노동에 지쳐있던 할머니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회공헌

세계교육문화원은 각 기업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업과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는 나눔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진절차



함께하는 기업들



따뜻한 관심으로 싹트는 사람의 씨앗 해피빈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든든한 식사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식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모금함을 열었고, 총 2,000kg의 쌀을 마련해 전달했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넉넉한 양의 쌀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쑥쑥 자라야 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맛있는 밥을 든든하게 먹고 훗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의 소외감을 치유하는 원예교실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상처 받은 마음을 치유해줄 체험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돈을 벌러 종일 밖에서 일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남에게 의지하거나 위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탓입니다.

홀로 외로움과 싸우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자 세계교육문화원은 모금함을 열어 심리치료 원예체험을 지원했습니다. 자그만 손으로 조물조물 흙을 만지고, 자신이 만든 화분을 선생님께서 자랑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필리핀 쓰레기 마을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파티



휴양지로 유명한 필리핀의 수도 한 곳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주민 대부분이 주위에 널린 쓰레기더미 속 플라스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톤도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톤도 마을 아이들을 위로하고자 크리스마스 파티와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도 몰랐던 아이들은 갖고 싶었던 선물과 맛있는 간식을 받고 행복웃음을 지었습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톤도 아이들을 위해 랭귀지스쿨을 설립하여 무상으로 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레기 대신 꿈을 찾으며 살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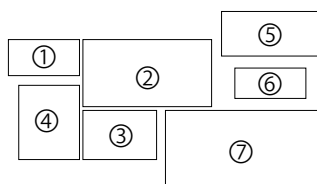
탄자니아 아이들을 위한 깨끗한 우물 건설



한국인에게 물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마실 수 있을 만큼 흔하고 값쌉습니다. 하지만 탄자니아 아이들은 늘 목마름과 싸우며 흙탕물로 간신히 목을 축이며 살아갑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 받고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에 노출된 탄자니아 아이들을 위해 세계교육문화원은 모금함을 열었습니다. 후원자님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덕에 아이들이 목마를 걱정 없이 학교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탄자니아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소중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위카사진전



- ① 보육원 자립 생계 식품키트 지원
- ② 캄보디아 품까뻬어 유치원 기공식
- ③ 음악 수업을 받는 연희
- ④ 국내 청각장애 아동 언어교육
- ⑤ 키르기스스탄 어학당의 한국어 발음 연습하는 아이들
- ⑥ 신나게 뛰어노는 우간다 위스쿨 아이들
- ⑦ 태국 반던탐 합주부 방과후 연습

희망을 전하는 정기후원 정기후원은 기적을 만드는 나눔입니다.

후원자님들의 정기후원은 NGO가 정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귀한 자원입니다. 일시후원과 정기후원 모두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만, 정기후원은 체계적·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케 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인 문제와 복합적인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직접 활동하는 전문가 및 NGO와 함께 통합적인 접근과 다각적인 도움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기후원은 그러한 나눔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자원이 됩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큰 기적을 이뤄냅니다. 정기후원을 통해 그 기적에 동참해주세요.

보내는 사람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발송유효기간
2022.6.10 ~ 2024.6.9

서울 구로 우체국
제40104호

받는 사람

World Educational Cultural Aid
WECA www.weca.or.kr
세계교육문화원

(085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1103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세계교육문화원 위카
TEL 1522-3959



※ 신청서를 작성 후 반을 접어 풀칠로 붙여주신 뒤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WECA 정기후원회원 신청서

□인적사항 ※개인정보는 후원관리 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월 10만원 ☐기타(원)

결연후원 ☐월 3만5천원 X 명 후원금 원

□후원방법

■ CMS자동이체 ※매월6일(잔액이 없을 경우 21일) 진행되며, 세계교육문화원으로 자동이체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 신용카드 결제 ※매월6일(잔액이 없을 경우 21일) 진행되며, 세계교육문화원 또는(주)나이스페이먼츠로 승인됩니다.

카드명 카드번호

소유자명 유효기간 월 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소득세법 160조의3. 시행령 208조의3입니다.

주민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동의 : CMS/카드 출금이체를 통한 후원금 수납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금융기관명, 계좌(카드)번호, 주민번호(카드유효기간)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나이스페이먼츠(㈜휴먼소프트웨어

- 보유 및 이용기간 :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회원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금융기관명, 계좌(카드)번호, 주민번호(카드유효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동의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

☐동의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하며, WECA 정기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눔의 시작 WECA와 함께하세요”

📍 후원참여

작은 나눔으로 아이들의 미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계좌이체 / 신용카드, 전화, 홈페이지, 후원용지를 통해 신청

□일시후원

WECA 홈페이지를 통해 캠페인별 후원신청

□자원봉사

캠페인 참여, 행정업무 등의 봉사, 디자인, 사진, 영상, 번역, 등의 재능기부

□참여형 기부캠페인

해외 빈곤 아이들을 위해 물품을 만들어 전달하는 활동

□후원문의

1522-3959 | www.weca.or.kr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2-762011

외환은행 630-009125-412

농협 301-0038-6648-81

하나은행 360-910009-65504

국민은행 009901-04-024345

□예 금 주

사단법인 세계교육문화원



📄 후원정보 변경

후원과 관련된 정보나, 주소, 전화번호, 소식 수신방법 등 개인 정보의 변경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1522-3959

• 홈페이지 로그인 > Q&A 문의



